

실사 준비·국제행사 홍보 총력 부다페스트와 연대 윈-윈 전략

2019세계수영선수권 광주에서

중 유차절차와 전략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광주 유치에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19일 최종 선정일 까지 유치절차와 광주시의 유치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광주와 2과전이 예상됐던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2021년 대회 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유치 전망이 한층 밝아지고 있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집행위원회의 과반이 찬성해야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투표 당일까지 치밀한 유치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은 절차=광주시는 우선 오는 29~30일로 예정된 FINA의 광주 현지실사에 올인 할 방침이다. 현지실사가 개최지 평가 점수 중 5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광주를 방문하는 실사단은 코넬 마컬레스쿠 FINA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마케팅부장과 집행위원 3~4명 등 1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공식 일정(29~30일)을 소화하기 위해 오는 28일 입국해 5월 1일 출국하는 일정을 광주시에 통보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이 입국하는 28일 인천공항에서부터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실사단의 공식일정 첫날에는 대회 장소가 될 남부대 수영장부지 등을 안내하고, 오후에는 영주수영장에서 열리는 제 85회 동아 수영대회의 참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준비로 전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립현장과 삼성전자가 기아자동차 공장 등도 실사단에 소개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에게 삼성과 기아차 광주공장 견학은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FINA실사단은 이 기간 동안 최근

이달 말 광주 현지실사

7월 19일 총회서 투표

광주시가 제출한 공식 유치 제안서(합의서) 초안 내용인 경기장, 숙박시설, 방송, 마케팅 등 경기 운영 계획과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두루 접

2019 세계수영 선수권 개최지 선정 일정

날짜	내용
2012년 10월 22일	FINA유치신청 참여 의향서 마감
2013년 1월 16일	FINA 스위스 로잔서 대회 세부정보 등 설명회
1월 17~4월 3일	공식 유치 신청 준비
4월 4일	FINA에 공식 유치신청서 제출
4월 5일	FINA에 개최도시 제안서 초안 전달
4월 28~29일	FINA대표단 광주 실사
5월 27~6월 28일	유치신청 도시 제안서 공동작성
7월 1일	유치도시 제안서(합의서) 발표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FINA총회 개최도시 선정

검하게 된다. 특히 해당 지역민의 유치 열기 등도 실사점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FINA실사단은 점검이 끝나면 곧바로 스위스 로잔 본부로 이동해 실사내용을 분석한 뒤 단점을 해당 도시(광주)에 통보한다. 이는 완벽한 대회개최를 추구하는 FINA만의 독특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광주와 수영연맹은 FINA 실사단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제안서 최종본을 제작한 뒤 오는 7월 1일 FINA에 제출(발표)하면 모든 유치절차가 마무리된다.

FINA집행위원 22명은 유치제안서 최종본을 이를 철저히 점검한 뒤 오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개최도시를 결정한다.

◇3대 유치전략으로 승부=광주시는 실사단 대비와는 별도로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해 광주 유치를 홍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는 오는 15~19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세계스포츠기자연맹(AIPS) 총회에 참석한다. 강 시장은 이번 총회에서 광주의 강점과 비전 설명, 유치지원 협조 등을 호소할 계획이다. 시는 5월 26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2013 스포츠코리아' 행사에도 홍보부스 등을

설치해 FINA 관계자들과 접촉하기로 했다.

시는 또 FINA내 지한파로 통하는 홀리우 회장 등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광주 유치의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홀리우 회장은 FINA집행위원들이 모이는 행사마다 강운대 시장을 초청해 광주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표면적으로 경쟁상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와의 유대 관계도 다져나가기로 했다. 시는 2019년 광주, 2021년 부다페스트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고, 유럽권인 헝가리와 공동으로 FINA집행위원 중 6명에 이르는 유럽출신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21년 개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의 입장에서 광주와 공동 협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남도문화관광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인 광주 지산유원지 전경. 시는 용역을 거쳐 이곳에 전통문화 콘텐츠 센터, 남도전통 문화진흥원, 오방촌 한옥촌, 명인 음식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찾는 외래 관광객 뒷걸음질 강시장 “광주관광 삼각벨트 추진”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방문 관광객 수 감소와 관광 인프라 낙후 등으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 관광산업이 도마에 올랐다.

정현애(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 수는 지난 2010년 22만8000명에서 2011년 15만7000명으로 줄었다”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 중 점유비율은 2.2%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 관광산업의 약점으로 ▲낮은 도시 브랜드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 부족 ▲도시환경 및 경관, 소비시설 등 도시매력 저조 ▲관광관련 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문화·예술과 연계된 관광상품 부족 ▲관광도시 추진할 민간협력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어등산 관광산업 단지 사업과 유치공원 및 패밀러랜드 명품화 사업이 운영기업들의 무관심 등으로 지지부진한 점도 광주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광주지역의 전 산업 중 관광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 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관광공급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 관광산업의 활로 찾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재홍(무소속·동구 2) 의원이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관광산업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한 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정책과 국립공원 무등산, 지산유원지 주변 남도전통음식타운 등 문화관광테마파크를 잇는 관광 삼각벨트를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운대 광주시장장은 광주만의 체험 관광상품 개발 국립공원 무등산과 증심사(아시아문화벨트파크), 지산유원지(남도전통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관광 삼각벨트 추진, 광주·전남 관광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지난달 말 무안~중국 천진을 매일 운항하는 정기선 전세기를 유치해 첫 취항을 했고, 이달 말부터는 무안~중국 심양을 매주 2회 운항하게 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민 편의보다 경제성 핑계 ... 3배 이상 차이

영호남 KTX 운행횟수 격차 왜

영·호남의 KTX 운행횟수의 격차가 큰 이유는 이용객 수요라는 경제성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호남선의 이용객이 경부선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운행 횟수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영·호남의 KTX운행횟수의 비중을 따져보면 격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운행 횟수, 경부선과 3배 이상 차이**=경부선이 전체 KTX 운행 횟수의 73.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선은 20.8%, 전라선은 6%에 불

과했다. 특히 주말 증차율의 경우 경부선의 비중이 92.30%를 차지하는 반면 호남선은 7.69%, 전라선은 0%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간 노선별로 운행된 KTX 총 좌석수와 승차 인원을 비교한 결과 주말 좌석 점유율은 전라선이 105%였다. 경부선은 92%, 호남선은 68%를 기록했다. 새마을호도 호남선의 경우 광주와 목포 구간이 주중과 주말 각각 6회와 4회인 반면 경부선 부산과 동대구 구간은 주중과 주말 각각 10회와 20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열차의 경우 공

공제 성격이 강한 만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선·전라선 열차 운행 횟수를 점차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 논리에 치우쳐 지속적으로 영남지역과 운행횟수의 격차가 벌어질 경우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는 저속철, 열차도 차별**=경부고속철도는 지난 2005년 1단계 개통에 이어 2009년 2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은 명실상부한 ‘교통 허브’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지난 2009년에야 ‘첫 삽’을 떠 오는 2014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KTX는 서울에서 동대구역까지 1시간 40분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서울에서 광주역까지 2시간 50분, 목포역까지 3시간10분 정도가 소요돼 호남선의 경우 사실상 ‘반쪽 고속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경부선에 비해 호남선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이용객 수가 경부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운행 초기 고장이 빈발해 ‘리콜’결정까지 됐던 KTX-산천을 호남선 노선에 집중 투입하는 점도 ‘무대립’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호남선 용산~광주 상하행선 20편 중 절반인 10편이 KTX-산천이며, 용산~목포 구간 26편 중 12편이 KTX-산천이다. 반면, 서울~부산 간 경부선 상행선 73편 중 KTX-산천은 3편에 불과하다.

국산 기술로 제작된 KTX-산천의 경우 프랑스 알스톰사가 설계제작한 KTX-1 보다 고장률이 3.1배 높은 수준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더 답답한 소리만 한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계절의 여왕이 돌아왔다!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봄 이벤트!
계절의 여왕 봄, KB국민은행과 함께 봄의 설렘을 만끽하세요

봄날의 문화이벤트

• 대상: KB국민은행 고객 및 일반시민 누구나(총 2032명)

• 내용: ①유치형 "봄" 정오 공연티켓이 전석 5천원 (1인2매 한정, 장가: R석 기준 4만5천원) ②컬처인KB, 인터파크, 옥션, YES24 예매 후 현장수령

• 기간: 2013.4.23~5.16 매주 화/목 총 8회 및 12시 공연

• 장소: 대원로 아트원씨어터 2관 (254석)

국민과 함께하는 Always with KB

• 대상: 이벤트 기간 중 인터넷뱅킹(스타뱅킹을 통해 예약 또는 최근 110만원 이상)을 가입하고 영도한 고객

• 내용: 추첨을 통해 백화점모바일상품권(신세계,인원)을 회차별 500원(총 4,500원)씩 제공

• 기간: 2013.3.4~12.4 총 9회차 (매월 10일 당첨자 홈페이지에 게시)

신용카드 / 가맹점 결제계좌 변경고객

•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가 타행인 고객이 당행 결제계좌로 변경한 경우

• 내용: 자동 오토되며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100만원 상당) 1부, 신세계상품권(10만원 상당) 20부, 이마트 모바일상품권(1만원 상당) 300부씩 제공

• 기간: 2013.3.1~5.31(2013.6.17 당첨자 홈페이지에 게시)

KB 국민은행 자산관리 브랜드

• 내용: ①행사기간동안 홈페이지내 퀴즈를 맞힌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회차별 200만(총 1,000만)원 상당의 KB국민은행 STAR TAB은 또는 KB국민카드 노후설계시스템 체험하기 고객님 중 추첨을 통해 회차별 316만(총 1,588만)원 추첨한 고객님 제공 (경품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기간: 2013.2.1~6.30(총 58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홈페이지 게시

* 상기 경쟁행사의 제세과금은 KB국민은행이 부담합니다.
* 본 이벤트 및 행사는 KB국민은행 및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남일보 광고팀 또는 콜센터(1599-9999)로 문의하십시오.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십시오.
* 준비기간인 심의일 제 215호 (2013. 03. 25)